

신대치요법 이전에 발생한 양측성 대퇴골 경부 골절을 동반한 신성골이영양증 1례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박기룡 · 엄은아 · 한병호 · 정연순 · 임 학

A Case of Renal Osteodystrophy with both Femur Neck Fracture before Renal Replacement Therapy

Kiryong Park, Eun-A Eum, Byoung-Ho Han, Yeon Soon Jung, Hark Rim

Kosin Universit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신성골이영양증은 만성 신부전환자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합병증의 하나로 환자의 이환율과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자들은 무릎관절과 고관절의 만성통증을 호소하던 중에 의식혼탁으로 내원하여 말기 신부전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진단 당시 신성골이영양증에 의한 양측성 대퇴골 경부 골절이 동반된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13세 여자로서 2일간의 호흡곤란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1년 전부터 양측의 무릎에 통증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였으며, 3개월 전부터는 증상이 악화되었다. 내원 2일전부터는 경한 호흡곤란이, 그리고 내원 1일전에는 수 분동안의 전신성 긴장간대발작이 발생하였다. 과거력 상 11년 전 (당시 만 40개월) 신증후군, 초점분절사구체경화증으로 진단 받았다. 내원 당시 혈압 110/70 mmHg, 맥박 124회/분, 호흡40회/분, 체온 36.5°C이었다. 골반 진찰 소견 상 당시는 의식이 혼미하여 압통을 관찰하지 못하였으나 입원 2일 후 의식이 회복되고 난후 양측 골반 외측부에서 둔한 압통이 관찰되었고 대퇴부 운동에 의해 통증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키는 140 cm, 몸무게 35 kg으로 같은 연령대의 평균치(키 150±3.5 cm, 몸무게 44 ±4 kg)에 비해 2표준편차 이상 감소를 보였으며 유방발육과 치모 등 이차 성징이 발현되지 않았다. 검사실 소견 상 혈색소 3.9 g/dL, 백혈구 24,000/mm³ (호중구81%, 단핵구 4%), 혈소판 400,000/mm³. 생화학검사 상 총단백 5.3 g/dL, 알부민 2.3 g/dL, BUN 121 mg/dL, Cr 16.7 mg/dL, ALP 213 mg/dL, Ca 3.0 mg/dL, P 11.5 mg/dL, iPTH 915.1 pg/mL였다. 골반부 단순 방사선 결과 양측 대퇴골 경부에 방사선 투과가 증가된 불규칙한 선상병변과 뼈결질의 붕괴소견이 관찰되었으며, 뼈동위원소촬영 상 오른쪽 골반관절에 광자흡수 감소소견이 관찰되고 좌측 9번째 갈비뼈의 뒤바깥쪽과 3,4,5,6번 갈비뼈의 뒤쪽에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골절 일것으로 보이는 음영 증가 소견이 보였다. 내원 당일 응급 혈액 투석을 시행 후 입원 7일에 복막투석 도관의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입원 21일에 양측대퇴골 경부 골절에 대해 외부고정술을 시행한 후 퇴원하여 외래 관찰 중이다.